

##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

김형준<sup>1\*</sup>

<sup>1</sup>제주대학교 건축학부

## The Ontological Thinking of Authenticity in Jeju Architecture

Hyoung-Jun Kim<sup>1\*</sup>

<sup>1</sup>School of Architec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제주건축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에 대해 살펴보고, 건축개념으로서 건축의 제주성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제주건축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성에 대해 정리하고, 이 논의들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이후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루이스 칸의 건축 존재론을 통해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새로운 층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제주의 현대건축이 지향해야할 지역성의 토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uthenticity of Jeju architecture, to give attent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that we inhabit, and to escape from existing architectural discourse of Jeju architecture. This study seeks the ontological thinking of Jeju architecture on the basis of the judgement of critique and ontology of architecture. The ontological thinking of Jeju architecture can be studied in the aspect of disinterested of authenticity and ontological question of authentic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wo aspects in the ontological thinking of Jeju architecture are revealed. One aspect of the authenticity of Jeju architecture is laying in the disinterested area. Another aspect is that authenticity of Jeju architecture is revealed through the ontological question of Jeju architecture. These aspects mean the authenticity of Jeju architecture as thinking which represents ontological layer of Jeju architecture.

**Key Words** : Authenticity of Jeju Architecture, Ontology of Architecture, Judgement of Critique, Disinterested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세계자연유산 제주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아름다운 섬이다. 제주는 약 천년 전 하나의 국가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의 질곡 속에서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지켜왔다. 우리 역사 속에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은 흔치 않다. 고구려의 평양, 백제의 부여, 신라의 경주, 고려의 개성 정도가 천년의 고도일 것이다. 수도 서울이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주가 가진 역사

성은 누적된 시간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

제주의 건축은 이러한 역사성 위에 특수한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어우러지면서 생성되어 왔다. 따라서 제주건축에 대한 지역적 성격 또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아직도 제주의 건축학계와 건축전문가 사이에서의 논의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주건축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으며, 논의의 층위도 일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곧 제주건축이 가진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건물의 형태나 재료,

이 논문은 2010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Hyoung-Jun Kim

Tel: +82-19-327-1515 e-mail: kimhj@jejunu.ac.kr

접수일 12년 01월 03일

수정일 (1차 12년 01월 19일, 2차 12년 02월 15일)

게재확정일 12년 03월 08일

배치나 공간구성 정도의 수준에서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제주건축의 지역성이나 정체성 논의는 하나의 건축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논의를 위한 논의로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주건축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건축의 제주성’으로 정리하여 다른 차원, 곧 존재론적 층위에서 접근함으로써 ‘건축의 제주성’이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건축의 제주성’으로 치환되는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정체성이며, 구체적 대상은 ‘건축의 제주성’이라는 추상적 논제의 언어가 된다. 곧 ‘건축의 제주성’ 자체가 연구대상이 된다.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의 제주성’이 드러날 층위를 밝히고자 한다. 그 층위는 두 개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데, 하나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루이스 칸의 ‘건축 존재론’이다. 특히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이 가진 다른 차원의 층위를 드러냄으로써 ‘건축의 제주성’ 대한 현재의 일차원적 논의를 다른 층위의 논의로 옮겨 놓고자 한다.

### 1.3 선행연구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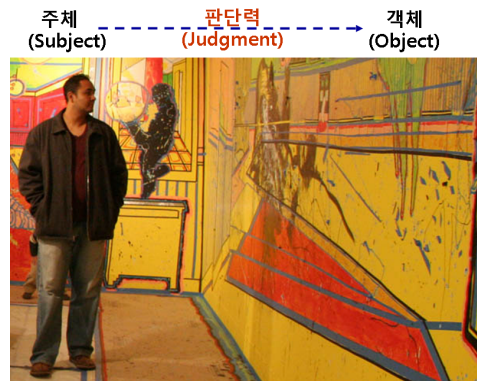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건축의 제주성은 다른 지역의 건축과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건물의 형태, 재료, 공간구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태일은 제주돌담장의 외부구성, 등근선의 초가지붕, 지붕형태 등으로 제주건축의 풍토적 요소를 정리하고 있다[1]. 양성필은 건축의 벽감, 처마, 제주석의 사용 등을 통해 건축의 제주성을 정리했다[2]. 제주도내 건축가 18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에서도 건축의 제주성은 제주도에 지어진 건축물의 형태, 재료, 공간구성의 범주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3].

이상과 같이 제주도에서 건축의 제주성은 제주성의 본성에 대한 접근이나 논의보다는 물리적인 외관이나 재료에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논의도 일차원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본성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판단력 비판’ 과 ‘건축의 제주성’

### 2.1 판단력 비판과 미적 무관심성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판단력에 대한 것이었다[4]. 칸트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성격이나 특성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객체를 바라보는 관찰자, 곧 주체의 시선과 판단력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관찰하는 관람자와 대상인 예술작품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의 관람자는 객체인 예술작품을 감상한다. 이 때 칸트가 주목하는 것은 주체의 대상이 되는 객체, 곧 예술작품이 아니라 주체인 관람자가 예술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판단력’ 그 자체이다. 곧 칸트가 주목하는 것은 객체의 속성이 아니라 관람자가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술작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곧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림 1]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  
[Fig. 1] Art work and museum visitor

예술작품은 동일해도 바라보는 관람자에 따라 그 평가는 다양하다. 예술작품에 대한 쾌, 불쾌의 판단도 다르다. 왜 주체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비너스 상을 살펴보자. 그림 2의 하나는 2세기경 그리스 말기 만들어진 밀로의 비너스이며, 다른 하나는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밀로의 비너스를 ‘아름답다’ 또는 ‘미의 상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는 밀로의 비너스보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더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미의 기준과 척도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 아프리카인이 생각하는 미와 유럽인이 생각하는 미가 다르며,

아시아인과 아메리카인이 생각하는 미가 다르다. 동일문 화권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려시 대,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이 다르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 름다움, 곧 ‘미(美)’란 무엇인가? 미의 본질은 무엇인가? 미의 정체성,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의 본질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림 2] 밀로의 비너스(좌)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우)  
[Fig. 2] Venus of Melos(left) and Willendorf(right)

이러한 질문에 대해 칸트는 ‘미적 무관심성 (disinterested)’이라는 단어로 답을 한다[5]. 곧 칸트가 주목하는 것은 객체 내부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미의 본질이 아니라, 주체가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판단력이다. 말 그대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미의 본질, 본성, 특성 등에는 관심이 없거나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른 주체들이 왜 ‘아름답다’ 또는 ‘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미적 무관심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두 개의 비너스 상이 가지고 있는 미의 본질보다 그 시대,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아름답다’ 또는 ‘미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 또는 ‘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미의 본질을 누군가가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미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보다 왜 ‘아름답다고 판단하는가’이다.

### 2.2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판단력 비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통해 살펴볼 때, ‘건축의 제주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본질보다는 ‘제주의 건축성’에 대한 판단력이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미의 기준이 바뀌고 주체들의 관계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듯이 ‘건축의 제주성’ 또한 언제든지 바뀌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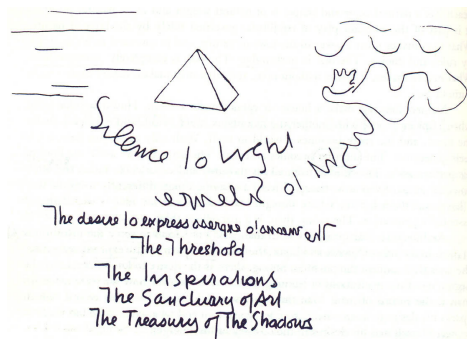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의 제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들의 판단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 때 ‘건축의 제주성’ 논의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의 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차원적인 논의에서 다차원적인 논의로 전개될 수 있다. ‘건축의 제주성’ 논의에서 재료, 지붕형태, 외관, 색상 등의 논의는 일차원적 영역의 닫힌 구조의 논의이다. 그 이유는 재료, 지붕형태, 외관, 색상 등이 여전히 건축물, 곧 대상인 객체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근거할 때 ‘건축의 제주성’ 논의는 통시적, 공시적으로 확대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기능할 수 있다.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주체들의 판단력에 주목을 해야 ‘건축의 제주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건축의 제주성’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건축의 제주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의 사유 내에서 드러나는 건축의 제주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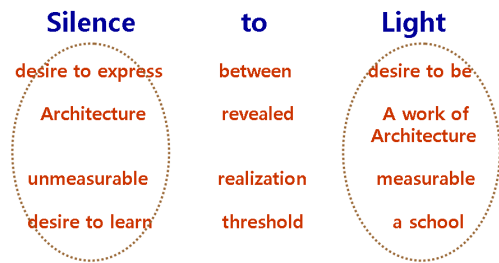
### 3. ‘건축 존재론’과 ‘건축의 제주성’

존재론의 철학적 토대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다[6].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건축을 투영한 것이 ‘건축 존재론’이며, 건축가 중에서는 루이스 칸이 건축 존재론을 말하고 있다[7]. 루이스 칸의 건축 존재론은 루이스 칸이 언급한 ‘침묵과 빛(Silence and Light)’의 개념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림 3] 침묵과 빛, 루이스 칸, 1970  
[Fig. 3] Silence to Light, Louis I. Kahn, 1970

그림 3의 1970년 루이스 칸의 스케치는 ‘침묵과 빛’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나는 존재론적 사유를 보여준다. 이 스케치에 담겨진 단어와 사유들은 이후 더 확장되면서 루이스 칸의 건축 존재론을 완성한다.



[그림 4]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Fig. 4] Architectural Ontology of Louis I. Kahn

그림 4에서 'Silence'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며, 'Light'는 '보이는 그 무엇'이다. 'Silence'와 'Light' 사이에는 'to'가 있는데, 'to'는 방의 문지방과 같은 경계이다. 'Silence'와 같은 범주 안에 사용되는 개념어에는 desire to express(드러내고자 하는 바), Architecture(건축), unmeasurable(측량할 수 없는), desire to learn(배우려는 바람)이 있으며, 'Light' 범주 안에는 desire to be(되려는 바), A work of Architecture(건축물), measurable(측량할 수 있는), a school(학교)이 있다. 'to' 범주 안에는 between(사이), revealed(드러남), realization(깨달음), threshold(문지방)가 있다.

루이스 칸의 개념어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건축 존재론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된 바'로 나타나고, '건축'은 '건축물'로 드러나며,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깨닫고, '배우려는 바람'은 '학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측량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랑이나 우정의 행위들을 통해 깨닫거나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우려는 바람과 열정이 학교를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건축이란 무엇인가'의 '건축'은 '건축물'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방식이 존재론적 사유의 방식이며, 건축 존재론의 핵심이다.

루이스 칸의 건축물들은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드러난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희생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친구의 신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무엇'에 대해 정의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에 대한 존재자의 행위를 통해 '그 무엇'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 '건축'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고, 정의하기 어려우며,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물'을 통해 '건축'은 드러난다.

실례로 루이스 칸은 엑시터 도서관을 디자인하면서, '도서관'을 '그 무엇'으로 보고 '도서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가 스스로 '도서관'에 대한 묻고 답한 것은 '도서관'은 '책과 사람과 빛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엑시터 도서관을 설계할 때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서면서 책이 놓인 서재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사이에 중정을 두어 빛이 책과 사람 사이에 들게 하였다.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엑시터 도서관은 만들어졌다.



[그림 5] 엑시터도서관 모형, 루이스 칸  
[Fig. 5] Model of Exeter Library, Louis I. Kahn

루이스 칸에 있어서 '건축'은 무엇인가? 그에게 '건축'은 '건축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을 드러내는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건축'에 대해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는 설계는 그의 건축 존재론의 핵심이다. 루이스 칸의 건축은 물음에서 시작한다. 루이스 칸의 비유적 언설인 벽돌에 대한 물음도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니? 벽돌이 말했다. 나는 아치가 되고 싶어요" 벽돌의 기능, 용도, 구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그의 건축의 시작이다[8].

#### 4.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

루이스 칸의 존재론적 물음이 있는 층위를 존재론적 층위라 할 때, 이 층위에 '건축의 제주성'을 투영할 수 있다.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은 'Silence'와 같은 것이며, '건축'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바'이며,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존재론적 물음의 대상인 것이다. Silence인 '건축의 제주성'은 Light인 '건축물'을 통해 드러난다.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은 정의 하거나, 정의 될 수 없으며, 과거나 전통, 재료나 지붕형태의 집착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존재론적 물음을 통해 드러난다.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에서 ‘건축의 제주성’은 제주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건축의 제주성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일차원적 층위에 머무는 행위이다. ‘건축의 제주성’은 결코 정의되지 않는다. 다만 그 어떤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 무엇’은 ‘된 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건축의 제주성’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해석하기 위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나 루이스 칸의 건축 존재론처럼 ‘건축의 제주성’의 드러남과 깨달음을 위한 물음이 필요하다. 그 물음의 역할과 책임은 건축가에게 있으며, 그 물음을 묻는 건축가는 언젠가 ‘건축의 제주성’이 드러나는 ‘건축물’을 완성할 것이다.



[그림 6] 인력거에 그려진 국회의사당  
[Fig. 6] Rickshaw with a pain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방글라데시 다카에 지어진 루이스 칸의 국회의사당은 완공 후에 방글라데시의 자랑이 되었으며, 방글라데시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 되었다. 다카의 시민들은 루이스 칸이 설계한 국회의사당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가장 방글라데시적인, 방글라데시의 지역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건축의 방글라데시성’을 드러내는 건축물로 루이스 칸의 국회의사당을 말하고 있다[9]. 그림 6과 같이 방글라데시의 인력거를 끄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력거 뒤에 국회의사당을 자랑스럽게 그려놓고 다닌다. 이들에게도 루이스 칸의 국회의사당은 자랑이며 자존심이다.

루이스 칸은 미국인이었지만 방글라데시의 지역성을

가장 잘 드러낸 국회의사당을 설계하였다. 건축가가 그 지역의 태생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자라지도 않았지만 그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은 루이스 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호주의 자랑이며 호주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지만, 설계는 덴마크 태생의 요른 웃존이 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이 빌바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지만, 설계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프랭크 오 게리가 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건축가만이 그 지역의 건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건축성은 루이스 칸처럼 그것에 대해 존재론적 물음을 할 수 있는 건축가가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의 제주성’은 ‘건축의 제주성’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물음’을 가진 건축가의 ‘건축물’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 5. 결론

‘건축의 제주성’ 논의는 ‘건축의 제주성’이라는 정체성이나 본성, 본질이나 특성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건축의 제주성’은 ‘건축의 제주성’에는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찾고자 집착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건축의 제주성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도 아니며, ‘건축의 제주성이란?’ 질문에 답하거나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건축의 제주성’을 찾기 위해 과거나 전통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건축의 제주성’을 보여주기 위해 재료, 지붕 형태, 외관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남’의 문제이다. ‘건축의 제주성’은 어떤 ‘건축물’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지, 본질이 있어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남은 물음에서 시작한다.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물음이 그 시작이며, 끊임없는 물음 속에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이 ‘건축의 제주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 때야 우리는 그 건축물이 ‘건축의 제주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루이스 칸의 다카 국회의사당이 방글라데시의 건축성을 보여주었듯이 그 지역의 건축성은 존재론적 층위에 있을 때 드러난다. 따라서 과거, 전통, 재료, 지붕형태, 외관, 고향제주와 같은 일차원적 층위보다는 존재론적 층위에서 ‘건축의 제주성’을 다루어야 한다.

## References

- [1] Tae-il Kim, Jeju Architecture, Jeju University Press,

- 2008.
- [2] Sung-phil Yang, Ideal and Ppractice, Jeju Architectural Seminar, pp.63-74, 2011.
  - [3] Gun Yang, The Essay of Jeju Architectur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e, 2007.
  - [4] Byung-hea Gong, Kant Kritik der Urteilkraft, Ulsan University Press, 1999.
  - [5] Kyung-soo Kim,, Architectural Aesthetics, Balun, 2000.
  - [6] Martin Heidegger, Kwang-hee So trans., Sein und Zeit, Kyungmunsa, 1995.
  - [7] Woong-Hee Ahn Architectural ontology of Louis I Kah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 [8]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1991.
  - [9] Sarah Williams Goldhagen, Louis Kahn's Situated 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2001.

---

**김 형 준**(Hyoung-Jun Kim)

[중신회원]



- 1993년 2월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사, 건축론, 건축설계